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KIA 최고참 불펜 최영필

“불혹? ...우승의 꿈은 나이들지 않죠”

황대인·박정수 등 아들같은 후배들과 19번째 시즌 준비

“마운드에 있을 때가 행복...풀타임 뛰어 우승 기여하고파”

‘불혹’ 최영필의 야구는 진행형이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의 최고참은 투수 최영필(41)이다. 1997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시작된 그의 야구는 올해로 19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방출로 한때 마운드를 떠나야했던 그는 지난해 KIA 유니폼을 입고 돌아왔다. KIA는 그에게 기회의 땅이었고, KIA에게 그는 마운드의 희망이었다. 연륜의 투수는 공격적인 피칭과 노련함으로 이내 불펜의 중심이 됐다.

2015년에도 그의 야구는 계속된다. 홀로 마운드 복귀를 준비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겨울에는 마음 편하게 또 빠르게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캠프 연습 경기에도 투입되는 등 19번째 시즌은 이미 시작됐다.

최영필은 “지난해에는 시즌 처음부터 1군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올해는 준비를 많이 했다. 피칭개수도 늘리려 하고 있다. 올해는 풀타임을 하고 싶어서 체력적인 부분까지 생

각해 페이스를 빨리 올렸다. 시즌이 끝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개인훈련을 할 때는 생각도 많고 마음이 급했는데 팀에 합류해서 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풀타임을 꾸꾸는 이번 캠프는 아들들과 함께 하는 캠프이기도 하다. 야구를 하는 아들 종현군이 올해 경희대 후배가 됐다. 이번에 입단한 박정수·황대인 등의 고졸 신인은 아들과 닮은 후배들이다.

최영필은 “아들하고 야구를 하는 셈인데 즐겁다. 신경써야 할 부분은 매년 더 느는 것 같다. 후배들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나이가 차 있다보니 나보다는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 (웃음) 후배들이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들같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최영필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야구에 대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

최영필은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서있을 때의 행복함을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잘 안다. 직업이 프로야구 선수니까 절실하게 또 애착을 가지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마운드를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운드에 있는 자체로 행복한 최영필이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꿈과 욕심은 끝이 없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켜온 자리, 불가능해 보이던 복귀를 이뤄냈던 그에게 불가능은 없다. ‘우승’은 여전히 그가 가슴에 품고 사는 큰 꿈이다.

최영필은 “언제부터 많은 팀에게 가을야구하는 게 목표가 됐다. 야구에 불가능은 없고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승, 그것을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다. 우승을 하고 싶다. 1998년 현대 우승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엔트리에는 들지 못해서 형들이 따로 내 것을 만들어서 줬었다. 내 힘으로 우승을 이루고 우승 반지를 갖는 게 내 꿈이다”며 “야구는 오래 했지만 기록적으로는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오래 야구만 한 선수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 남기고 싶다. 일단 올 시즌 팀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해 우승에 대한 꿈도 계속 꾸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한기주·곽정철 피칭...복귀 ‘기대 UP’

한, 이상 소견없이 순조

곽, 대만서 2차 캠프 소화

종료를 앞둔 스프링 캠프, 함평 챌린저스 필드 캠프는 지금부터다.

KIA 타이거즈의 오키나와 캠프가 4일 종료된다. 대만에서 진행됐던 2군 캠프도 5일 철수된다. 2015 시즌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되는 분위기지만 함평 챌린저스 필드는 본격적인 시즌 준비로 분주하다.

2일 오전 함평에서는 투수들의 피칭 릴레이가 있었다. 지난 28일 오키나와 캠프에서 일찍 집을 났던 좌완 양현종과 임준섭도 이날 함평에 합류하자마자 공을 들었다.

에이스 양현종은 물론 올 시즌 KIA 마운드의 키를 쥐고 있는 투수들이 함평을 무대로 2015 시즌을 위한 칼을 갈고 있다.

관 재할캠프에서 위밍업을 끝낸 한기주, 차명진, 서재웅과 오키나와 캠프에서 열구리 통으로 조기 귀국을 한 한승혁도 눈에 띈다. 이 중에서도 KIA를 대표하는 강속구 한기주·한승혁의 움직임은 큰 관심사다.

KIA는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연습경기에서 9전 전패를 당했다. 9경기 실점이 103점에 이를 정도로 마운드의 모습이 좋지 못했다. 특히 신진급 선수들이 불펜에 대거 투입된 테스트를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실전 투입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오랜 시간 부상으로 마운드를 떠나있던 한기



2일 함평 챌린저스 필드 웨이트장에서 투수 양현종(오른쪽부터), 한기주, 차명진, 한승혁이 복근 운동을 하고 있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의 복귀는 팀은 물론 개인에게도 간절한 바람이다. 마음은 급하지만 천천히, 한기주의 시즌이 준비되고 있다. 특별한 문제없이 순조롭게 한기주 피칭이 진행되고 있다.

한승혁도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스프링 캠프 흥행전에서 궤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심상치 않은 시즌을 예고했던 터라 갑작스런 부상이 아쉽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시간이 필요한 부상인 만큼 오버 페이스를 막기 위해 코칭스태프는 함평으로 일찍 한승혁을 돌려보냈다.

검진 결과 이상도 없고 공도 이상무. 오히려

지난해 보다 위력은 더해졌다.

김정수 투수 코치는 “정상적으로 피칭을 하고 있다. 공의 구위도 좋지만 변화구도 지난해에 비해 한층 좋아졌다. 투수들 모두 정상 컨디션으로 피칭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의 순조로운 마운드 가동 속에 대만에서 들려온 곽정철의 소식도 반갑다. 대만에서 2차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곽정철은 1일 실전 피칭에 나서 149km를 찍으며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슈틸리케, 3월 평가전 ‘제2 이정협 찾기’ 돌입

휴가 끝 첫 일정은 K리그 관전

2015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준우승을 이끈 울리 슈틸리케(61·독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휴가를 끝내고 4일 귀국해 본격적인 3월 평가전 준비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낸 슈틸리케 감독이 4일 오후 귀국한다”며 “7일 K리그 클래식 경기를 관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안컵 일정을 마친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달 6일 자택이 있는 스페인 남부의 항만도시인 알메리아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27년 만에 한국을 결승전까지 끌어올리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슈틸리케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자신감이 떨어진 태극전사들에게 다시 승리욕을 채워넣으면서 국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한 달간 달콤한 재충전을 마친 슈틸리케 감독의 첫 일정은 K리그 클래식 개막전 관전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오는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성남FC의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전북에는 부상으로 그동안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

한 ‘라이언킹’ 이동국이 뛰고 있다. 이동국으로선 3월에 예정된 두 차례 A매치(27일 우즈베키스탄·31일 뉴질랜드)를 앞두고 슈틸리케 감독 앞에서 대표팀 재출전의 기회를 엿볼 기회다.

이동국은 지난달 24일 가시와 레이솔과의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앞두고 허벅지 근육이 살짝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이번 개막전을 목표로 몸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전북-성남전 관전을 시작으로 K리그 클래식 경기를 계속 관전하면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큰 활약을 펼친 이정협(상주)과 같은 ‘숨은 유망’ 발견하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생활체육회장에 허정인 세진항공 부회장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전남생활체육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드리겠습니다.”

전남도생활체육회 제10대 회장에 허정인(59·사진) 세진항공 부회장이 당선됐다.

허 당선자는 지난달 27일 순천시 오전동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1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46명 중 28명의 찬성을 얻어 제10대 전남생활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는 3표전이었다. 허 당선자를 비롯해 이금영(70) 목포시생활체육회장, 김영득(57) 순천대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수가 경쟁을 펼쳤다.

허 당선자는 국민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스포츠유치위원회 감사, 전남도 정부특별보좌관, 광주전남행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6년 전남생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허 당선자는 순천고와 단국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승주JC 초대 회장과 전남도의회 3선 의원, 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 감사, 전남도 정부특별보좌관, 광주전남행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